



봄철 산불,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 증가
- 행정안전부·산림청, 현장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및 산불 대비태세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 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 한편,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신속한 초기 진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통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7일부터는 소속 산하 공공기관 직원까지 모두 함께하는 전국 단위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산불재난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하면서, 산불방지 관계 기관 대책회의와 함께 산불 확산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 박은식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행 중 화기 사용을 삼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산림청과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불 대응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혁 (042-481-8920)
		담당자	사무관	신경조 (042-481-4279)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안길주 (044-205-6170)
		담당자	사무관	박원일 (044-205-6183)